

울산제일일보

HOME > 라이프

두 청년 사회활동가 이야기, 사단법인 청춘어람 설립에 박차

윤 이주복 기자 | 승인 2022.09.19 14:55



청년부터 노인까지, '무력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청년들은 높아지는 취업과 창업의 문턱 앞에서 꿈을 포기하고, 꿈의 사다리를 그저 바라봐야 하는 경제적 무력감을, 노인들은 첨단화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사회적 무력감을 주로 겪고 있다. 무력감에 빠진 세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께 일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 사단법인 청춘어람의 정세준 대표와 백성범 부대표는 세상을 밝히며 나아가는 청년들이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일하며 일상을 보내던 두 사람은 "세상을 밝히는 실천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자 과감히 퇴사한 후, '청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여러 단체를 결성했다. 그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사단법인 청춘어람'(이하 청춘어람)이다.

청춘어람의 주된 프로젝트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이다. 이 프로젝트는 두 사람이 함께 진행 중인, 남해군 마을 주민 대상의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 봉사활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남해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소멸지역으로 65세 이상의 군민이 어느 곳보다 많은 지역이다. 한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섬이라 다른 지역의 정보화 교육에 참여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남해군민들은 디지털 기술과 친하기 힘든 환경에 놓여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청춘어람에서 기획한 것이 지역 주민 주도의 스마트폰 교육 '시니어 스마트 데이' 캠페인이다.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인 캠페인은 마을 인근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각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한 달에 1~2회 마을회관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활동이다. 부·울·경 청년들에게는 일종의 '챌린지'가 되면서, 여러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였다. '시니어 스마트 데이'는 스마트폰 교육을 넘어 지역의 청년과 노인, 청소년과 장년이 만나는 만남의 장으로 성장했다. 봉사활동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 특성이나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자료, 연구자료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생겼다.

정세준 대표와 백성범 부대표는 더욱 적실성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교육 기관, 연구 단체, 플랫폼 개발 기업 등이 통합된 지금의 형태로 사단법인 청춘어람을 조직하게 되었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이렇게 실천을 기반으로 한 청춘어람의 다음 프로젝트는 나이나 지역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다. 두 사람은 오랜 연구를 통해, 디지털 정보 격차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노령층을 위한 종합복지 정보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플랫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된 소프트웨어가 '까치'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노인에게 대한 디지털 교육뿐만 아니라, 취미생활이나 일자리 등 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한다. 또한, 위치 기반 시스템을 통해, 지역 노인 간, 세대 간, 노인과 복지 시설 간 소통과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티 Non-stop 서비스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내달 무료로 국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세계 곳곳에서 4차 산업 혁명에 의한 디지털화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피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시작으로 새로운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뛰는 청년들의 새로운 움직임이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두 청년은 세상을 밝히기 위한 도전이 본인들만의 것이 아니라며, 한 마디 메시지를 전달했다. '청춘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복 기자